

러시아·몽골 광업현황 및 진출전략

Mining status of Russia and Mongolia and their expansion strategy

심권용(Gwon Yong Shim)

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본부 투자개발실 투자운영팀(shimson@kores.or.kr)

러시아와 몽골은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대표적인 북방국가로서 에너지·광물자원 부족잠재성이 뛰어난 반면, 자원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강화 및 전략적 중요광상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제한 추진, 개발지에 대한 인프라 미비로 대규모 개발투자비가 소요되는 등의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.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오일머니 유입으로 연 7%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. 그러나 소비재 수입으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.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매년 30%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자원개발 부문이 20%를 차지하고 있다. 전략산업(군수, 항공, 우주, 원자력, 국가독점산업 등)의 지분을 50% 이상 인수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자본주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다. 또한 러시아는 전세계 광물자원의 약 17%가 부존하고 있으며 석유, 가스, 석탄,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. 또는 에너지·광물자원 생산액 GDP 25%, 수출 79%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다. 푸틴 정부시절에 정부, 민간주도로 경제,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2002년 이후 세계 메이저 광업회사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다. 몽골 역시 최근 몇 년간의 자원가격 강세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9년 US\$3,000만 달러 ⇒ 2006년 US\$36,000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하였다. 주요 생산광물로는 석탄, 동, 몰리브덴, 형석 등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국토의 75%가 자원개발 미탐사 지역이다. 광물자원 생산액이 GDP 30%, 수출 75%를 차지할 만큼 자원의존형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2006년 7월 광업법을 개정하여 전략광종의 정부지분의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. 러시아에서의 진출대상 광종으로는 유연탄, 우라늄, 동 등이 유망하며, 진출전략에 있어서는 첫째, TSR/RAM 인접 제철용 석탄부존지(사하, 브리야트, 치타 등) 등에 운송인프라 확충계획과 연계한 개발 진출을 확대해야 하고, 둘째, 사하지역 유연탄광 개발경험을 토대로 우라늄 등 타 광종으로 기회 확대 및 제도적, 관행적 진출 애로사항 및 노하우 공유 사업추진 시행착오 최소화를 해야 하며, 셋째, 최근 5년 간연평균 GDP 성장률 7%대 고성장국으로 이로 인해 주요 신용기관의 러시아 투자등급 상향조정으로 투자환경개선 및 대외 신뢰도 회복에 따라 對 러시아 편향적 시각 재정립을 해야 한다. 몽골은 유연탄, 우라늄, 동, 몰리브덴 등이 유망하고 이를 확보위해 첫째, 남고비, 고비-알타이 등 남서부지역에 대한 유연탄, 동, 몰리브덴과 중동지역에 대한 우라늄 및 내륙특성상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부존유망 미탐사지역에 대한 탐사를 추진하고, 둘째, Tavan Tolgoi 사업 등 제철용 석탄부존 잠재성이 뛰어난 남고비지역 개발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노력하고, 셋째, Ivanhoe 등 기진출 유력기업과 개발진출 노하우 공유 및 신규 사업 공동추진 등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. 러시아와 몽골에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최근 자국기업 우대 정책 및 정부지분 보유 의무화 등 자원개발관련법 개정을 통한 자원민족주의 추세이다. 또한 사업수익성 저하로 사업 참여 의지 위축되어 있으며, 인프라 미흡으로 과다한 개발투자비용 부담이 된다. 과거 사회주의적 사고가 잔존하고 있으며, 서구경제개념 적용이 난해하다. 그리고 법령 및 세제의 빈번한 개폐로 행정일관성 결여되어 있다. 유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 메이저 자원개발업체의 시장선점이 상당히 이루어

어져 있다.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자원 외교의 적극적인 협력,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현지사무소 개설 및 지역전문가 양성으로 현지화 노력 등 자원협력채널을 통한 자원의 교역 강화 투자환경적응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. 또한 자원개발과 발전소, 철도, 도로 등 자원과 인프라 투자의 연계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. 아울러 기진출 사업확대 적극지원 및 제도적, 관행적 진출 애로사항 및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. 이를 위해 기진출업체 및 자원 협력채널을 통한 자원의교역 강화를 할 것이며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현지사무소 개설예정이다. 몽골의 경우 남고비지역 철도, 발전, 용수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운송 인프라 건설 등 SOC사업과 연계한 진출방안 모색 중이다. 그리고 대규모 금속광화대 및 탄전지역 인근 미탐사지역과 외국기업과 유대강화 공동투자기회 확보, 개발진출 수행능력 및 투자환경적응 등 유망광구의 발굴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